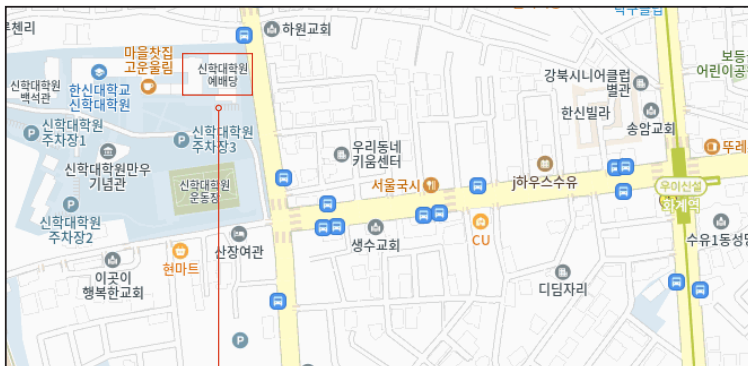


오시는 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

주소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

수유역(4호선) 3번 출구, 마을버스(강북02) : 20분 소요

화계역(우이신설선) 2번 출구, 도보 : 5분 소요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 홈페이지 : <https://abombtribunal.campaignus.me>
- 공동의장 :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명예 주교
히라오카 다카시 전 히로시마 시장
존 웨스터 미국 산타페 대학교 대주교
- 공동 코디네이터 : 브래드 울프 미 변호사, 평통사
- 법리팀 : 다니엘 리티커 등 반핵 법률가, 학자들
- 국제 파트너 (2026.9 현재) 39개 단체
- 서포터즈 (2026.9 현재) 211명의 개인 및 단체

I N V I T A T I O N



2026서울 원폭국제 민중법정

일시 2026년 11월 13일(금) ~ 11월 15일(일)

장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홀(서울 수유리 캠퍼스)

행사 11월 13일 사실 심리, 낭독극, 역사현장 탐방 등
11월 14일 위법성 심리, 핵피해자 대담 및 전문가 대담 등
11월 15일 국가책임 및 예비판결·권고, 관계자 좌담회 등

주최 원폭국제민중법정 국제조직위원회

문의 abombtribunal@gmail.com

+82-2-711-729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후원(서포터즈) 기업은행 057-084533-15-022

초대의 말씀

한국원폭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이 5년의 준비와 2차례의 국제토론회를 거쳐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을 밝히고

미국의 국가 책임을 물어, 미국의 공식 사죄·배상·재발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 핵대결의 해결 전망을 제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의 길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울 원폭국제민중법정은 일제 강점과 원폭 투하의

이중 피해를 입고도 80년간 침묵을 강요당한 한국원폭피해자가

미국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법정으로,

향후 실제 소송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원폭국제민중법정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판사단 리처드 포크 (미국, 프린스턴대 국제법 명예교수), 이석태 (한국,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조리 콘 (미국, 토머스제퍼슨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캐서린 갤러거 (미국, 미 헌법권리
센터 선임변호사)

11/13(금) 오전 9시, 사실 심리

과거의 핵사용과 피해, 현재의 핵 대결과 피해의 재발 가능성을 조망한다.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 모두 진술 및 청구요지 발표 : 박규훈 (변호사)

전문가 진술 : 오은정 (서울대 인류학 조교수),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 명예교수),
윌드 윌슨 (작가, 반핵평화운동가)

청구인 증언 : 박정순, 전소자, 박윤규, 심진태, 이기열 (한국원폭피해자 1세),
김형률, 한정순 (한국원폭피해자 2세)

11/14(토) 오전 9시, 위법성 심리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와 현시기 핵 위험·확장억제의 위법성을 심리한다.

핵피해자(제3자) 증언 : 마쓰모토 마스에, 다나카 시게츠미 (일본 원폭 피해자),
아시아아 몽곰베 몸빌로 (콩고 원폭개발 과정 피해), 메리 딕슨(미국 핵실험
피해자), 베네딕트 카부아 메디슨 (마살레도 핵실험 피해자)

피해자 증언 소감 : 앤 라이트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멜리사 파크 (ICAN 사무총장)

전문가 진술 : 다니엘 리티커 (로잔대 국제법 겸임교수), 마니 로이드 (빅토리아대 법
학부 선임강사), 모니크 코미에 (모나시대 법학부 부교수), 야마다 토시노리
(메이지대 국제법 겸임강사),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레베카 슈트(변호사, 국제사법기관강화연합 공동의장)

11/15(일) 오전 9시, 국가책임 및 예비판결·권고

미국의 국가책임을 심리하고 사죄·배상·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예비판결과 권고를 내린다.

전문가 증언 : 마이클 진 (일리노이대 역사학 부교수), 도즈카 에츠로 (변호사, 전 류코
쿠대 법학부 교수), 에릭 로스 (매사추세츠대 역사학과 박사과정), 매튜 리프먼
(일리노이대 국제법 명예교수), 베셀라 테레제바 (변호사, 암스테르담대 박사),
프레데릭 메그레 (맥길대 국제공법 석좌교수)

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최종변론 : 박규훈 (변호사)

예비 판결 및 권고